

SK하이닉스 2026: 메모리의 한계를 넘어 (Beyond the Limits)

AI 시대 지능의 해방과 가치 창출을 향한 서사

1. 도입: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The Villain)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아주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넘쳐납니다. 지능은 이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능이 흐르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모리 벽(Memory Wall)**'이라 부릅니다.

이 벽은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닙니다. 인류의 꿈을 가로막는 '**꿈의 살인자**'입니다. 열을 뿜어내고 전력을 갉아먹으며, 우리 미래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허물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AI 혁명은 그저 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화면: 검은 배경에 피쳐럼 붉은색 글씨로 'MEMORY WALL' 단어 하나만 노출]

[무대 지시: 잡스가 무대 중앙에서 천천히 걸으며, 관객의 눈을 하나하나 맞춘다. 잠시 멈춰 서서 아주 깊은 한숨을 쉰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장벽 앞에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벽을 부수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장벽을 박살 내기로 했습니다.

2. 해결사: 세상이 기다려온 대답 (The Hero)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인류의 지능을 해방할 유일한 열쇠. 바로 이것입니다.

[무대 지시: 조명이 꺼지고 잡스의 손에 단 하나의 핀조명이 떨어진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칩 하나를 꺼내 마치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듯 높이 치켜든다.]

[화면: 제품 사진 없이, 거대한 황금빛 타이포그래피로 'HBM' 그리고 '1st' 노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결정체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SK하이닉스의 HBM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빠른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시대가 숨 쉬게 하는 '**폐**'이자, 사고하게 하는 '**신경**'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입니다. DRAM과 NAND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의 정수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이 기술은 이제 전 세계 AI 서버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이것이 SK하이닉스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혁신의 뿌리는 '**신뢰**'에 있습니다.

3. 신뢰의 가치: 주주를 향한 우리의 진심 (Transparency & Value)

우리는 주주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 '15,300,000' 숫자가 서서히 타오르며 'Value'라는 단어로 변하는 애니메이션]

지난 2026년 2월 9일,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15,300,000주의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무려 8,722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가치를 기꺼이 불태워 여러분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발행 주식 총수 5,721,980,209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맺은 소중한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무대 지시: 무대 끝으로 걸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관객을 응시하며]

우리는 시스템을 통째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사외이사'라는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독립이사**'라는 새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사회에 진정한 독립성을, 그리고 잘못된 것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더 투명해졌고, 더 정직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기업의 품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4. One More Thing: 새로운 전설의 시작 (The Surprise)

오늘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모리의 벽을 허물었고, 주주 여러분께 진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무대 지시: 퇴장하려다 갑자기 멈춰 서서 관객을 돌아보며 미소 짓는다.]

"Oh, and... One More Thing."

[화면: 전 세계 지도가 펼쳐지며 이천(Icheon)에서 뉴욕(New York)의 월스트리트로 이어지는 강렬한 황금빛 줄기 노출]

우리는 더 큰 무대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무대로 말입니다.

이천에서 시작된 우리의 혁신은 이미 미국, 중국, 싱가포르를 넘어 전 세계에 뿌리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세계 자본의 심장에서 직접 평가받으려 합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류의 지능을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록하고, 세상을 연결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전설은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지시: 관객의 환호가 절정에 달할 때까지 잠시 멈춰다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무대를 떠난다.]